

발 간 등 록 번 호

11-1620000-000427-01

국가인권위원회 2012년 여성가출청소년 인권상황 현장조사 보고서

‘보호’ 논리에서 사회적 ‘안전망’ 구축으로

발 간 등 록 번 호

11-1620000-000427-01

국가인권위원회 2012년 여성가출청소년 인권상황 현장조사 보고서

‘보호’논리에서 사회적‘안전망’구축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여성가출청소년 인권실태 현장조사팀



국가인권위원회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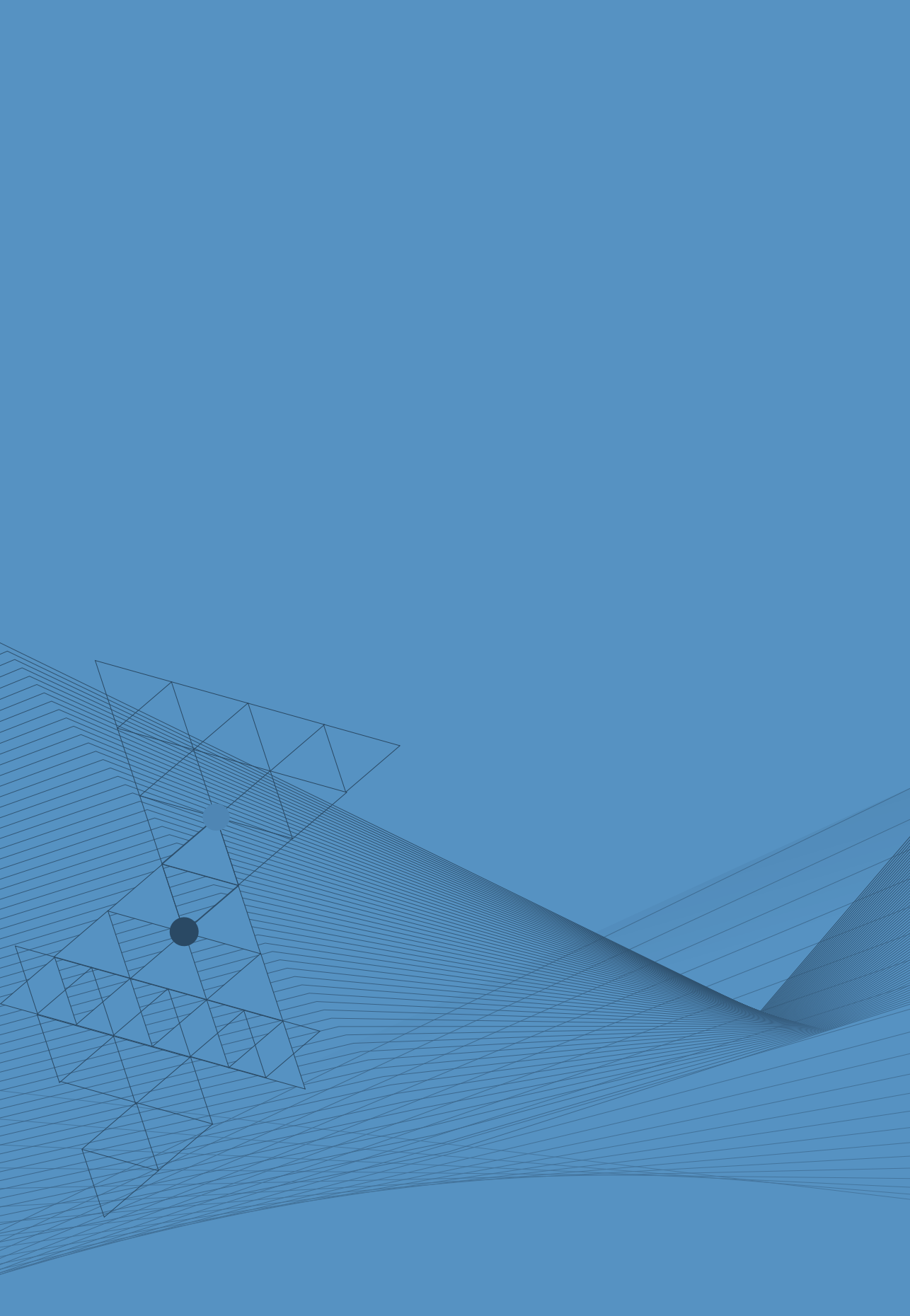
이 보고서는 연구진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수행한 결과물로서 보고서에 포함된 의견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2012년 여성가출청소년 인권상황 현장조사 보고서

'보호'논리에서 사회적'안전망' 구축으로

차 례

1. 들어가며	05
2. 여성 청소년의 가출 경험	13
2.1. 사회경제적 변화와 여성청소년 가출	13
2.2. 가출 의미와 다양성	19
2.3. '집'이 되어주지 않는 쉼터	29
2.4. 개별적 안전 지침의 구축	43
3. 맺음말 :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	55



1

들어가며

십대의 가출은 주로 일탈이나 위기, 병리학적인 특수한 상황으로 설명되어 왔다. 십대는 어른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미성년이며, 십대에게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학생’이라는 사회 인식 때문이다. 사회는 십대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집과 학교로 한정하고 가출 상태를 십대들의 적합한 위치를 벗어난 일탈로 보고 범죄화해 왔다.

하지만 현재 십대 가출은 이전과 다른 맥락에 놓여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한국의 구제금융 관리체제 이후 급증한 신빈곤층이라는 변화된 사회경제적 현상과 십대들 스스로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인식이 그것이다. 이로 부터 발생한 가족의 노동중심성의 증가와 가족 ‘해체’ 위기, 그리고 십대에 대한 가족들의 영향력 감소 및 돌봄의 공백, 교육의 양극화(변혜정, 민가영, 2007), 시장과 사회에 등장한 십대 등의 변화 속에 지금 청소년 가출이 놓여 있다.

특히 여성 청소년의 경우 이러한 변화된 요인은 가출과 함께 성매매로의 유입이라는 여성 청소년 가출에 대한 대표적 문제 외에도 다양한 가출의 맥락과 의미들과 연관을 맺고 있다. 예컨대 여성청소년들은 가족의 노동중심성 증가로 인해 어머니와 아내가 수행해온 보살핌의 역할을 떠맡게 되거나, 이 같은 과정에서 성폭력과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가족 해체 뿐 아니라 집 안에서의 여성 역할 수행에서 오는 어려움과 위험이 여성 청소년들로 하여금 집을 더 이상 '집'으로 여길 수 없게 한다. 또한 집 안팎에서 여성 청소년들에게 기대되는 성역할은 여성청소년들이 자립하거나 집을 떠나 독립할 수 있다는 가능성 보다는 여전히 보호라는 프레임 속에 이들을 붙잡아 두고 있다.

이미 시장경제 속에서는 비공식적이지만 십대들의 위치가 점차 높아가고 있고, 사회문화적으로 십대들의 목소리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십대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사회적으로 독립 가능하거나 가족이나 경제력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일찍 독립해야만 하는 존재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신빈 곤충의 증가와 사회 속에서의 십대의 위치 변화는 이전과는 다른 더 복잡한 맥락과 과정 속에서 가출을 경험하도록 한다.

그러나 현재 청소년 정책은 여전히 청소년은 집과 학교의 보호 속에 있는 미성년이라는 점을 전제하고 있으며 청소년 가출 정책 역시 이와 같은 이해 속에 있다. 청소년 가출 정책 중 대표적인 것은 가출청소년 보호소, 즉 쉼터 운영이다. 현재 가출 청소년 보호 쉼터는 크게 일시쉼터, 단기쉼터, 장기쉼터로 운영되고 있다. 가출 기간이나 대상 등에 따라 여러 종류의 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출 쉼터는 보호자 연계를 통한 가정 복귀를 최종

1. 들어가며

목표로 삼고 있으며, 가출청소년 보호를 이유로 짝 짜인 프로그램과 엄격한 생활 관리는 가출 십대들로 하여금 쉼터 이용을 기피하게 만들고 있다. 십대 가출의 변화된 맥락이 반영되지 않는 채로는 현재의 가출쉼터 정책은 가출 십대들을 불러들이지 못한다.

본 실태조사는 여성청소년의 가출 경험을 변화된 사회경제적 맥락 속에서 보고, 가출 여성 청소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현재의 가출쉼터의 형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진행하였다. 실태조사는 2012년 6월부터 10월까지 가출 경험이 있는 여성청소년 10명에 대한 심층인터뷰와 쉼터관계자, 십대 가출 전문가, 십대인권운동가에 대한 자문 인터뷰를 통해 이루어졌다. 인터뷰는 주 면접자와, 부 면접자 두 명이 함께 진행하였고 한회에 보통 2~3시간가량 이어졌으며, 필요에 따라 후속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인터뷰 대상자는 가출청소년들이 자주 모이는 장소에서 직접 모집하거나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로부터 소개를 받아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크게 가족, 학교, 자원망, 노동, 소비 등에 대한 질문을 통해 이루어졌다.

여성 가출 청소년을 만나는 것과 함께 자문인터뷰도 이루어졌다. 자문인터뷰에서는 가출 청소년 대상 지원 사업을 하는 청소년 복지 전문가, 가출한 십대 여성 연구자, 청소년 탈가정 운동을 하는 십대 인권운동가를 만났고, 이를

통해 현재 여성 청소년의 가출에 대한 현실과 제언을 들을 수 있었다.

면접 참여자와 자문 인터뷰 대상자의 간략한 정보는 아래와 같다.

면접 참여자

이름 (가명)	나이	학교 상태	가출경험 및 계기	가족 배경	현재 주거
영호	18	휴학	진보신당 입당과 철거민운동 참여, 청소년인권운동참여 경험	중상층 부모, '강남 8학군' 거주	집
미영	19	고1 자퇴	고1때 초등학교 친구 들과 재미로 집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 는 패턴을 반복함.	부모님이 공장 을 경영하고 양 아버지, 남동생이 있음.	공 원 이 나 짚 질 방 을 전 전 하 다 가 현 재 아 는 언니 집

1. 들어가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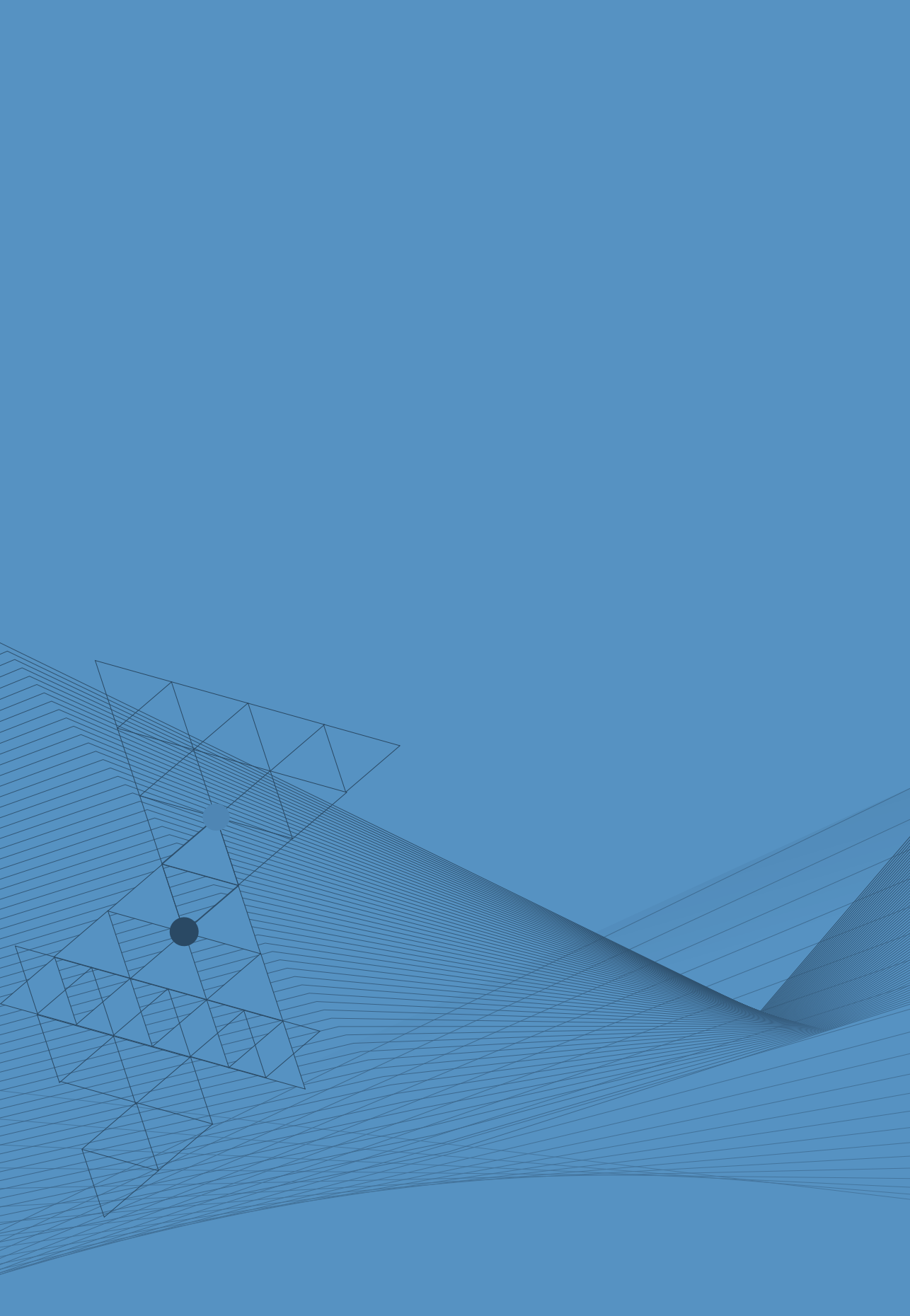
승미	19	중학교 자퇴 (초졸이라 아르바이트 를 못함)	가출계기는 가정불화 및 아버지의 폭력	어머니는 교통사 고로 다리절단, 아버지는 무직. 생활보호대상자 수급비로 생활. 아버지 폭력으로 어머니도 가출 및 연락 두 절 상태	부천시 인근 오락실 배회 및 노숙. 대안 학교 친구의 집 에 낮에 가끔 가서 씻고 잠.
경하	19	고3 재학 (인터뷰 당시 방학)	어머니 가출 후 단기 가출은 반복, 아버지 가 성폭력으로 구속 된 후 친가 친척들의 언어폭력으로 가출 상태	어머니는 어렸 을 때 가출, 아 버지가 성폭력 으로 구속된 후 기초생활보호대 상자로 선정, 2명 의 동생과 수급 비로 생활 중. 막내 동생과 함 께 현재 가출함.	부천시 인근 밤샘 배회, 사우나·모 텔(다른 가출 아이들과 함 께) 등
수희	17	고1 재학	경하와 가족 관계, 경하와 동일	경하와 동일	경하와 동일

주혜	16	중2 자퇴	아버지의 폭력. 처음에는 단기 가출, 이후 장기 가출	'밤일' 하는 아버지와는 연락두절. 전화번호와 주소가 바뀐 것 같다고 함.	노숙, 친구네, pc방, 찜질방 등
지희	17	중2 자퇴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살림을 맡음. 집안일이 너무 지겨워서 가출	어머니가 최근 재혼하신 후, 어머니를 따라가지 않고 혼자 살고 있음	어머니와 함께 살던 집에서 혼자 거주 있음
수진	19	대안학교 재학	단기 가출은 자주(2~3일, 일주일 외박), 장기 가출경험도 몇 회 있음	부모님과 여동생과 함께 거주. 고1 때까지 일반학교를 다니다가 자퇴	현재 가출중단, 가족과 함께 거주
소현	17	고등학교 재학	3-4회, 각 50일 넘는 가출 경험. 아버지 폭력, 할머니 잔소리가 가출 이유	초1때 부모 이혼. 이후 할머니, 아버지와 생활. 현재 할머니, 동생과 아버지가 구한 집에서 생활	가출당시 노숙, 앵벌이, 일시숙터. 현재 가족과 거주

1. 들어가며

자문인터뷰

이름 (가명)	나이	소속	경력	가족상황	거주형태
주연	18세- 고교자퇴 (중학교도 자퇴하고 검정고시)	시민단체 활동가	중학교 자퇴 후 경기도 소재 예고 문예창작과를 다니다가 한 달 만에 자퇴하고 친척집을 나와 서울로. 당시 서울에 사는 전 애인과 동거. 울산에서 수도권으로 올라온 이유 자체가 고교 진학 보다는 성소수자/청소년 인권활동이었기 때문에 자퇴 후 활동시작.	지역의 대기업에 다니는 아버지와 전업주부인 어머니	서울에서 애인과 동거
민가영	.	.	서울여대 교양학부 조교수	.	.
이정아	.	.	물푸레나무 대표	.	.



2

여성 청소년의 가출 경험

2.1. 사회경제적 변화와 여성청소년 가출

현장조사를 통해 만난 여성 청소년들 중 적극적으로 가출을 ‘출가’ 혹은 ‘독립’이라고 명명하는 한두 사례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생활보호대상자이거나 저소득층이었다. 부모가 있다고 하더라도 생계벌이 노동이나 재혼 등의 생존을 위한 관계가 더 중요해지면서 기존의 가족적 이데올로기 속에서의 자녀보살핌이나 훈육과 같은 부모의 역할은 약화되고, 물론 자녀에 대한 영향력 역시 약화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한국사회가 전반적으로 겪고 있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라는 문제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현실이다.

신자유주의는 시장 중심적 개인주의를 문화적 이데올로기로 내세우며 사회적 안전망과 집합적 가치에 기반한 제도를 개별화시키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흐름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신빈곤은 생계부양자 모델의 해체와 개별 노동자 모델의 확산 속에서 성별분업에 기반 한 가족 중심 삶에 대한 전망 상실과 함께 개인에 대한 가족의 구속력과 영향력을 약화 시키는 특징을 지닌다(민가영, 2008).

특히 현장조사에서 만난 여자 청소년들은 공통적으로 집 안에서 엄마가 부재하거나 엄마의 역할이 부재하거나, 경제적인 여건 상 엄마와 떨어져 살아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은 가족 내 어머니

혹은 아내라는 성역할을 딸인 여자 청소년들에게로 전가되도록 하고 있다.

저 유치원때. 그래서 제가 유치원 못 다니고 엄마 병간호를 했어요. 엄마가 다리를 절단하셨어요, 무릎까지. 의족하고 다니는데 불편하니까. 의족이 무거워서……. 근데 의족 하기 전에는 병원 신세를 졌는데,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이모도 몸 불편하고, 할머니도 불편하고. 아빠는 일 한다고 신경도 안 쓰고. 그래서 엄마 돌봐 줄 사람이 없으니까 저도 병원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 소변통 버려주고 갈아주고……. (중략) 엄마가 집에 안 들어와요, 아빠 때문에. 아빠가……. 엄마를 좀 헐박하는 스타일이에요. 좀 싸이코처럼…….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고. 엄마가 그거 듣기 싫어서 집에 잘 안 들어와요. 저는 엄마 있을 때만 집에 있고 거의 나와 있어요. -승미의 인터뷰 중-

엄마가 재혼하셔서. 원래는 엄마랑 둘이 같이 살았어요. 엄마 재혼하셔서 따로 나와 사는 거.

[교류는?] 일 이 주에 한 번 정도. [올 해 재혼하신거야?] 네.

2. 여성 청소년의 가출 경험

2.1. 사회경제적 변화와 여성청소년 가출

[왜 따로 살게 된 거?] 제가 싫어서요. 서울에서 쪽 살다가 경기도 간다는 것도 싫고, 경기도 가서도 학교 다닐 것 같지도 않고 집에만 있을 것 같아요. OO에서도 완전 시골이에요. 지금 혼자 사는 집에 계속 살았어요. 지금은 혼자 사니까 작은 데로 옮겼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후엔 엄마랑 6~7년 정도 쪽 살았어요.

[엄마가 이번에 같이 살자고 하지 않았어?] 엄마가 안 된다고 했어요. 그 아버지도 좋은 사람이긴 하지만……. 혹시 모를 일 때문에. 남자는 모른다고, 이모도 그렇고 힘들어도 혼자 살아야 한다고.

[지금 밥은 혼자 해먹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혼자 해먹었어요.
-민지의 인터뷰 중-

[엄마랑 같이 살수는 없어?] 아니요. 제가 가면 가는 거예요. 엄마가 자꾸 오라 그래요. 근데 가면 둘 다 고생하니까. 왜냐면 제가 생활비를 받아요. 받는데, 제가 그 새아빠한테 학원 다닌다 뺑치면서 받는 거거든요. 학원비 30만원씩 줘요 엄마가. 그……. 엄마가 엄마 빚도 갚고 제 생활비도 쓰고 하라고.

[그럼 집에서 30만원씩 받아?] 아니요 거의 80만원? 집세가 50만원이고.

[그럼 집세 빼고는 30만원 학원비 주시는 거고?] 근데 그것도 제가 쓰는 거는 한 달 용돈 5만원이에요.

[그럼 25만원은?] 그니까 30만원은요, 엄마 빚으로 따 빠져나가요. 그니까 저한테는 2주에 한 번씩 엄마가 한 5만원씩 줘요. 총 한달 따지면 십만원씩.
-민지의 인터뷰 중-

엄마를 돌보아야 했거나, 밤낮으로 생계노동을 하는 엄마를 대신해 살림을 해야 했던 경험, 혹은 집에 엄마가 부재하는 상황들 속에서 가출 여성 청소년들에게 집은 쉼이나 보살핌의 장소가 아니다. 민지의 경우는 엄마의 재혼으로 되레 엄마가 ‘승인’ 하는 합법적 ‘출가/독립’의 형태의 가출을 경험하게 된다.

다 웬만하면 요즘 애들 노는 게 다, 공부해봤자, 공부해도 못하면 안 좋은 소리 듣고, 잘 해야지 무조건 잘해야지 좋은 소리 듣잖아요. 만약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중간을 한다고 해봐요. 중간을 해도 나중에 대학가고 취직할 때는 아예 그거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럼 뭐 하러 공부를

2. 여성 청소년의 가출 경험

2.1. 사회경제적 변화와 여성청소년 가출

해야 되지, 그 생각. 전교1등 아니면, 해도 좋은 대학교도 못 가는데 뭐 하러 공부를 해야 되지, 이런 생각도 하구요. -수진의 인터뷰 중-

수진의 공부에 대한 현실감각은 신자유주의 신빈곤층의 증가와 양극화라는 맥락 속에 있다. 공교육은 이미 과도한 경쟁 속에 있고, 어렵게 사는 부모의 모습과 가족의 처지를 보며, 이미 부자가 아니거나 성적이 최고가 아니면 그저 그런 삶을 살게 될 거라는 희망이 없는 상태를 경험한다. 이와 같은 상태는 청소년들의 비유예문화¹⁾와 일상적 가출문화 배경의 일부를 차지한다.

또한 시장경제는 청소년들에게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위한 학교나 공부에 현재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 외에, 저임이지만 당장의 벌이가 가능한 선택지를 택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었다. 이는 경제적 환경이 좋지 않은 가족적 배경을 둔 청소년들에게는 부모에게 자신의 가출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로 작동하기도 한다.

1) 비유예 문화는 “미래에 얻을 수 있는 어떤 목적을 위해 현재를 유예하는 것을 거부하며 현재 즉각적으로 손에 짚 수 있는 것을 선택하겠다는 일련의 태도, 가치를 일컫는 개념”(민가영, 2009:92)을 뜻한다.

저는 서빙 하고, 주유소하고.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내가 알아서 산다고, 그것만 허락해 달라고.

[어머니 반응이 어떠셨어요?] “니가 일을 하나?” 그랬는데, 일하고, 동생한테 돈을 주니까 엄마가 알았다고. 네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서 요즘은 엄마한테 놀러간다 하면 돈을 주시고, 제가 보호관찰 중이라. 직업학교 있잖아요. 거기서 돈을 탔는데, 총 60만원을 탔는데, 그 중에 50만원은 엄마 손으로 다 넘어가고. 그랬어요. -미영의 인터뷰 중-

가족이 자신들의 바람막이나 조력자의 역할을 해줄 수 없는 배경만으로 청소년들이 가출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 2000년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난 인터넷과 소비자본주의 공간과 최근에는 시장경제에서의 노동이 청소년들에게도 일부 열리고 있는 현실이 청소년들로 하여금 집과 학교 외의 공간들을 다른 선택지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바로 이 과정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네트워크와 공간들이 청소년들에게 집과 학교 외의 삶을 상상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같은 문화는 청소년 문화 전반에 퍼져있는데, 특히 ‘비유예문화’와 가족 외의 비공식 자원, 관계망을 결합시킨 가출문화라는 특징을 보여준다.

2. 여성 청소년의 가출 경험

2.2 가출 의미와 다양성

2.2 가출 의미와 다양성

집은 전통적으로 가족의 공간으로, 부부 중심으로 핵가족화 되었다 하더라도 자녀 교육이 중요하게 여겨져 온 한국에서는 세대의 재생산, 자녀 돌봄의 일차적 공간으로 여겨져 왔다. 사회적으로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울타리로서의 의무와 역할을 하는 곳으로서 중요성이 강조되어온 것이다. 미성년자인 청소년은 독립된 인격체로 사회에 나가기에는 미성숙하고 위험한, 보호가 필요한 존재로 집, 즉 가족의 보호와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합의였다. 이와 같은 집과 청소년의 관계적 맥락 속에서 이제껏 청소년 가출은 집과 가족, 학교에 대한 반항의 표현이자 더 나아가 반사회적, 비규범적인 행동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지금의 청소년 가출의 맥락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집’의 의미를 질문하게 만든다. ‘집’은 지금 여성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공간인지, 여성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집’이 어떤 곳인지에 대한 질문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왜 이들이 집을 나오고자 하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실태조사를 통해 만난 가출을 경험하고 있는 여자 청소년들에게 집은 보살핌과 안식의 공간이라기보다 노동과 폭력, 무관심의 공간인 경우가 많거나 부모로부터 ‘독립’한 개별 주체가 되기 위해 떠나야 하는 곳이다. 집과 부모에 대한 이전과 다르

게 변화한 사회경제적 배경과 인식은 여성 청소년들로 하여금 집을 나오도록 만든다.

청소년들이 처한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가출을 다른 방식으로 의미화하고 재개념화 하고자 하는 연구들 역시 등장하고 있다. 가출을 집을 나오는 것이 아닌 '집을 찾기 위한 여정'(윤선미, 2011)으로서 의미화하거나 병리학적인 현상이 아니라 청소년기의 자연스러운 발달과정(유서구, 2012)으로 봐야 한다는 연구들은 더 이상 청소년의 가출을 전통적 방식으로 반사회적 행위로 규정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한다.

딱 가출하잖아요? 그럼 발랑 까졌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뭐, 양아치야 이러는데, 그 여자애들 중에서 몇몇 애들이야 그냥 놓고 싶고 그래서 나온 걸 수도 있지만, 대부분 거의 또 다른 여자들은 집안에 사정이 있거나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이래서 나와 있는 거니까, 무조건 대부분 가출했다고 그렇게 안 좋게 보는 것보다, 그냥 무슨 일이 있고나서 모른 채 떠들지 말고, 차라리 알고 도와줄 생각을 하지, 그거 가지고 까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수진의 인터뷰 중-

2. 여성 청소년의 가출 경험

2.2 가출 의미와 다양성

수진은 가출을 ‘제대로’ 봐줄 것을 요청한다. ‘대부분 거의 또 다른 여자들은 집안에 사정이 있거나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이래서 나와 있는 거’라고 가출의 맥락과 이유가 분명히 있음을 이해해주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한다.

청소년인권운동가 주연은 수진이 말한 바와 같이 가출에 대한 낙인이 너무 공고하기 때문에 아예 가출이라는 말 대신 ‘탈 가정’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맞다고 주장한다. 한국사회에 청소년의 목소리를 직접 내고 있는 ‘아수나로’ 등의 청소년인권단체 활동가들은 청소년들은 가출이라기보다는 독립/자립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탈가정이 좀 더 중립적인 용어로, 가출은 낙인찍을 때 많이 써서 저는 이렇게 하는데, 가출보다 좀더 지속적이고 좀 더 기반을 잡고 나오는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 가출은 1회적인 것까지 포함하고 탈가정은 자신이 커뮤니티나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상태 -주연-

본 실태조사에서 만난 탈가정, 출가의 대표적인 케이스는 중산층의 가족 배경을 가진 영호라는 18세 여성 청소년이다. 영호는 광주의 한 논술학원에서 진보성향 정당원인 선생님들을 만나서 사회운동, 사회주의에 눈을 떴다고 한다. 고1때 부모의 교육관으로 서울 대치로 전학을 왔고, 우연한 기회에 명동 마리 집회에 나가는 친구를 따라 다니면서 진보신당 당원이 되었다. 주로 영호의 가출은 집회 현장에서 밤을 샌다거나, 대학생인 진보신당 당원인 남자친구 집에서 지내면서 계속해서 사회운동원들과 지내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영호는 자신이 ‘가출’ 혹은 ‘출가’, 즉 집에서부터 나오면서 부터 집에서 보다 더 큰 꿈을 꾀다. ‘출가’를 함으로서 운동하는 집단의 선배들과 친구들을 만났고, 제도권 교육 내의 또래들보다 더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만날 수 있었다.

[출가와 가출이 어떻게 달라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게 그……. 청소년이 좀 쉽터처럼, 원래 쉽터가 만들어진 배경이 있잖아요? 청소년이 경제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전까지 거처할 곳이 전혀 없다는 점에 대해서 주로 고민을 많

2. 여성 청소년의 가출 경험

2.2 가출 의미와 다양성

이 했었는데……. 음……. 출가라고 불렀었는데, 가출이 아니라. 그런 이유는 그 어…스스로, 부모님이 죽도록 미워서라기보다는 스스로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보여드리고, 어느 정도는 그 생활이나 사고에 있어서 인정받고 싶다는 느낌도 있었고……. 저는 부모님께 경제적으로 독립이 가능하다, 나도 하나의 주체다라는 걸 인정받고 싶어서 출가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영호의 인터뷰 중-

영호의 사례는 적극적으로 자신을 독립된 개인으로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와 권리에 대한 자각으로부터 ‘가출’한 보기 드문 케이스로, 한국 사회 청소년인권운동이 등장하면서 출현한 새로운 형태의 가출이다. 하지만, 가족 내부의 다양한 문제로 집을 나온 여성 청소년들이 택한 ‘기존’ 방식의 가출들 역시 그 내막을 잘 살펴보면 ‘출가’와 ‘독립’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들 역시 집을 나온 상태를 절망으로 여긴다거나, 집을 다시 돌아가야 할 곳으로 여기지 않는다.

저 같은 경우는 원래 공부보다는 예술 쪽으로 나가고 싶었어요. 근데 중학교 때 담임이나 어머니 다 한 말이 그거였어요. 니 쓸데없는 꿈꾸지 말고, 공부나 해라, 니가 그거해서 성공할 수 있을 거 같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공부를 해가지고 성공하는 것보다 그쪽으로 더 노력해서 성공하는 게 더 빠를 거라 생각해요. 저는. 무작정적으로 공부 우선, 우선 공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공부 하라고 하는데, 그건 정말 어이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다보니까 저는 일찍부터 공부를 포기하고 자퇴를 했어요. (중략) 저는 원래 예술 쪽 가고 싶었는데, 꿈을 포기했었잖아요. 꿈 포기했는데, 공부를 하는데, 인문계 가다 보니까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다 보니까 보충도 추가돼, 야자도 추가돼, 이러다보니까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공부 안 하다 갑자기 앉아서 하루 넘게 반나절 넘게 이려고 앉아있어야 되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좋은 일도 있고, 공부도 하기 싫고, 그래서 저는 어머니한테 당당하게 자퇴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할 계획이 있으니까 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퇴하면 너가 무슨 수로 성공을 하겠냐, 그냥 참고 3년 다녀라 이런 식으로 얘길 하는데, 그걸 어떻게 참아요. 3년 동안 거의 365일을 이려고 어떻게 앉아있어요. 힘들잖아요. 차라리 학교 다니는 것보다 그 제가 꿈을 이루는 쪽으로 해야지, 전 비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했는데 어머니가 끝까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집을 나갔어요. 그 상태로. 막 이제 집을 나

2. 여성 청소년의 가출 경험

2.2 가출 의미와 다양성

가면 내가 놀 수 있을 만큼 놓고, 엄마한테 반항도 하면서, 재밌게, 애들이랑 놀 수 있으니까 나갔어요. -수진의 인터뷰 중-

아빠 잔소리랑. 잘못해가지고. 애들 만나는 데 늦게 들어온다고 막. 옛날에 요 아빠가 바가지로 막 때려가지고 손에 흉터도 났어요. 아빠가 막 머리로 때리고요. 바가지 같은 걸로 막 때리고 무서워서 안 들어갔어요. (중략) 아빠가 성폭행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요. 그런데요, 아빠한테 속아가지고 고모들이 막 난리치고요. “내가 니네 봐줄 줄 알고?”이러고 막 협박을 계속해요. 지금도 막 계속 해요. (중략) 고소한 걸로 고모들이 막 미친년이라고 그러고요. 고모한테 막 싸대기도 맞았어요. 싸대기 때리고요. 큰엄마가 말려가지고요, 고모랑 아예 막 싸움이 일어날 뻔 했어요. 고모가 그래서 미안하다고 하면서요, 아빠가 진짜 실제로 그랬냐고. 너 말 똑바로 해야 된다고 거짓말하면 안 되다고요. 그래서 다 말했어요. 다 말했어요. 근데요, 지금 아직도 저한테요, 뭐라 그래요. 장난 아니에요.

[너무 힘들었겠다.] 네. 차라리 그냥 혼자서 살고 싶어요. (중략)

[지금 나왔잖아. 지금 너한테 제일 필요한 게 뭐야?] 그냥 신경 안 쓰고요. 그냥 그렇게 생활했으면 좋겠구요. 돈이랑 씻을 데랑, 또 잘데 필요하고요. -경하의 인터뷰 중-

아빠가 저한테 막 제가 막내여서 이뻐하잖아요. 첨에 나한테 뽀뽀해달라고 하면서. 아빠도 저 이쁜데, 예뻐서 한 거 다 아는데, 아빠가 울면서까지 애길 했었어요. 아빠가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작은 소리로) 만지고 그랬거든요. 아빠가 저한테는 나는 니가 막내라서 이뻐서 이뻐서 했는데, 그럼 솔직히 저는 몰랐어요. 제가 막. 막 그러는 게 제가 싫었어요. (중략) 근데 제가 막 아빠랑 한 집에 있다가, 한 번, 자다가, 아빠가 이제 막 저한테 막 남자랑 잔 줄 알고, 의심하니까, 막, 손가락 넣은 게 아니라, 저랑 잔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좀 만지고. 아빠가 막 솔직히 만지고 그랬어요.
-수희의 인터뷰 중-

아빠가 욕하는 것도 좀 그렇고, 때리시고. 할머니도 잔소리가 좀 심하고……. 막, 동생이 잘못된 거 있으면 저한테 막 화풀이 하시고 욕, 제가 대들면 욕하고 때리고 그러니까 가출했어요.

[아빠 무서워?] 네.

[그러면 가출하면 더 무섭지 않아?]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예요, 아빠랑 맨날 싸우고 그랬어요. 전화로. (중략) 막 욕하면서 들어오라고. 어쩔 때는요, 들어오지 말고 그냥 쉼터에서 살라고. 나 너 같은 딸 이제 필요 없으니까 그냥 쉼터에서 살라고 그런 말 할 때도 있고요. 뭐 심한 말 할 때도 있어요. 남자들이랑 다리 벌려서 그거 하라고 그러고. (중략)

2. 여성 청소년의 가출 경험

2.2 가출 의미와 다양성

[쉬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럴 때 어떻게 해?] 집 들어갈 때도 있는데요.
 [아빠가 너무 무서워서 못 들어갈 거 아니야?] 아빠가 일하러 갈 때마다
 그냥 들어가구요. -소현의 인터뷰 중-

아빠가 술을 엄청 좋아하세요. 일주일 내내 마시고 그래요. 집에 와서도
 한 병 한 병 마시고 그러니까 제가 짜증내요. 술 좀 그만 처먹으라고. 진짜
 그렇게 말해요. 술 좀 그만 처먹으라고. 술 끊으라고 미쳤냐고 아빤 아무 말
 안하고 끊게 좀 해달라고. 아니 끊는다고. 술 마시고 주정부리는데 엄마가
 좋아하냐고, 그렇게 말해요. 엄마랑 같은 공장에서 아빠가 사장이니까,
 [엄마랑 같이 일하시나 봐요] 네. 짜증도 내고. 솔직히 아빠한테 제일 짜증
 많이 내요.

[아빠가 술 먹는 게 왜 싫어요?] 술 마시면 했던 말 또 하시고. 엄마랑 싸우
 다 보면 손 올라가고, 폭행하고 그래버리니까. -미영의 인터뷰 중-

수진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은 공부가 아닌 다른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지만,
 그것을 이해받지 못하는 집에서는 계속해서 학교를 다니며 시간을 보내야 한
 다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여 가출하였다. 수희와 경하는 아버지로부터

의 근친성폭력과 피해를 인정해주지 않는 고모들의 폭언이, 소현은 아버지의 폭언과 폭행이 가출의 직접적 계기가 되었다. 미영 역시 아버지의 잦은 음주와 가정폭력이 가출의 계기이다.

이들은 지금 새로이 등장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탈가정’이나 ‘출가’ 운동과 달리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가족적 상황에 ‘떠밀려’ 집을 나오게 되었다. 이들의 최초 가출 동기는 ‘자발적 독립’의 의지 때문은 아니라 할지라도, 자신들이 가족 안에서 겪은 경험들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무마될 수 있다고 여기기 보다 부조리하고 자신에게 좋은 곳이 아니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출할 수 있었다.

가족으로 돌아갈 수 없는, 가족이 보호해줄 수 없는 청소년들의 가출은 일탈이나 ‘비행’ 등의 기존의 청소년 가출이 정의되어 왔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의미화 할 필요가 있다. 집이 ‘집’의 기능을 하지 않는 배경의 여성 청소년들의 삶의 단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지금 우리가 만나게 되는 많은 청소년들의 가출은 오히려 독립을 시도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2. 여성 청소년의 가출 경험

2.3. '집'이 되어주지 않는 쉼터

2.3. '집'이 되어주지 않는 쉼터

가출청소년에 대한 국가 정책적 지원으로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의거하여 청소년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 쉼터는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로 구분되며, 일시쉼터는 전국에 10개소, 단기쉼터는 46개소, 중장기 쉼터는 25개소가 운영되고 있다(최순종, 2011).

그러나 이 쉼터는 실질적으로 가출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쉼터의 기능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가출”에서의 “집”의 의미가 1차적인 사회적 보호망이나 안전망, 기본적인 의식주의 해결과 돌봄의 공간으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청소년들에게 위험한 공간으로서, ‘나가야만 할 공간’으로서 인식되어지고 있다고 할 때, 현재의 ‘쉼터’는 그와 같은 청소년의 가출의 상황을 고려해서 구성되었던 공간이 아니다. “가출”을 청소년기의 일시성과 변덕성에 의거한 일탈행동으로 정의하고, 그에 근거하여 구성된 ‘쉼터’라는 공간은 기본적으로 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야한다는 가정 속에서 만들어져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집’이 돌봄과 재생산의 공간이 아니라 폭력과 착취의 공간이 되어지는 상황 속의 청소년에게, 이와 같은 ‘쉼터’의 공간성은 이들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해내지 못하며, 가출한 청소년들에게 장기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줄 수 없게 한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쉼터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체로 최악의 경우,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궁지의 상황에 처할 때, 이를 ‘일시적으로’ ‘이용’한다.

[그리고 너 쉼터 가봤었잖아. 쉼터가 어땠으면 좋겠어?] 자유도 많이 주고요. 밖에도 나가게 해주고요. 핸드폰도 할 수 있게 해주고요. [어떤 점이 제일 싫었어?] 바깥에 못 나가는 거랑. 애들이 전화 많이 오잖아요. 그리고 남자친구 안 되잖아요. 전화 못 받게 하고 그럴 때가 제일 싫어요. [어떨 때 주로 쉼터로 가게 돼?] 씻고 싶을 때요. 돈 떨어졌을 때요. [그럼 돈 있을 때는?] 사우나. -경하의 인터뷰 중-

경하의 맥락 속에서 쉼터는 ‘돈이 떨어진’ 상황 속에서만, 마지못해 재빠르게 이용하게 되는 선택이 된다. 경하는 이를 ‘자유’라고 표현하는데, ‘자유’는 한편으로는, 설사 고생할 것이 눈앞에 보인다고 하더라도, ‘가출’을 통해서 경하가 적극적으로 쉼터에 들어간 것이다. 집을 나와서 ‘자유’를 얻었는데, 다시 집과 비슷한 쉼터를 반길 리가 없다. 전화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고, 남자친

2. 여성 청소년의 가출 경험

2.3. '집'이 되어주지 않는 쉼터

구와도 만날 수 없는 상황을, 다른 연구 참여자는 '감옥'이라고 표현한다.

쉼터가 청소년들의 진정한 쉼터이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가출을 하게 된 원인과 그 과정들을 섬세하게 살펴보아야 하는데, 쉼터는 그저 거리로 나온 이들을 단속하고 통제하려고만 한다. 게다가 쉼터는 가출 상태를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고, 이들이 나온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항상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들이 나온 '집'이 어떤 집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질문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가정폭력을 겪고 가출한 아이들이 쉼터에 갔다가, 가족과 다시 연락이 닿게 되어, 다시 폭력에 노출되게 되는 경우까지 생긴다.

그는 가정폭력으로 나왔는데, 부모 연계를 해서 돌려보내니까 문제였다. 쉼터 명단을 다 뽑아서 하나하나 부모 연계를 하는지 물어봤는데 거의 다 했다. 부모에게 알리는 게 원칙인데, 안 그런데는 탈성매매 청소년 쉼터가 있었고, 그래서 그 (15세인) 사람이 그냥 성매매 한번하고 저기 들어갈까? 이런 말도 했었다. 또 다른 경우는 증명할 수 있을 만한 폭력증거가 있으면 되는데, 그 증거 없다고 성립이 안 돼서 다시 가해자랑 같이 있어야 하고. 이런 식으로 쉼터는 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기관이기에 한계적이고, 또한 규율이 대개

엄격하고 통제하는데, 그런 상황에 놓이고 싶지 않은 청소년들이 많다.
-주연의 인터뷰 중-

이처럼 쉼터가 가출 청소년들의 상황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최선이라는 사고 속에서 운영될 때, 가출한 청소년들에게 쉼터는 가출한 후 도움이 필요한 상황 속에서 유용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또 다른 억압의 공간이 된다. 청소년들을 ‘보호’하겠다는 쉼터의 콘셉트는 이들을 오히려 길 위에 계속 머무르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쉼터는 어떤 방식으로 바뀌어야 할 것인가? 이를 위해서는 가출한 청소년들이 떠나온 집, 그리고 이들이 집과 함께 떠나온 공간인 학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 돌봄과 가르침의 공간인 집과 학교를 떠나 거리에서 살고 있는 청소년들, 이들은 대체로 많은 경우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가출을 행한다. 이는, 이들에게 있어서 집과 학교가 돌봄과 가르침, 재생산의 역할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쉼터는 이처럼 집과 학교에서 나오게 된 아이들이 찾게 될 공간이다. 따라서 쉼터는 기존의 집이나 학교에서의 규범이나 규칙, 집과 학교에 소위 ‘잘 적응하여 살고 있는’ ‘모범생’

2. 여성 청소년의 가출 경험

2.3. '집'이 되어주지 않는 쉼터

아이들의 행동 양식의 기준에 맞춰져서 설계되어서는 안 된다.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남자친구를 사귀고, 놀러다니는 것이 즐겁고, 이 곳 저 곳을 돌아다니면서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또 잘 헤어지는, 거리에서 자기도 하고, ‘뽕뜯기’, 구걸하기 등이 일상화된 거리의 생활이 체화된, 가출한 십대의 행동 양식이 어떻게 행해지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이들이 어떤 지원을 필요로 하고, 실질적으로 무슨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사고하는 속에서 쉼터의 컨셉트가 새롭게 구상되어야 하는 것이다.

[질문자 : 쉼터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것 같아요?] 글썄요, 우선은 노동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니까 가정에서 나왔으면은 돈을, 계속 얘기하지만 경제적인 독립성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쉼터에서는 어느, 어느 그 상황이든 할 수 있는 노동에 대해서 교육시키는 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일정부분. (중략) 청소년이라면 필연적으로 현재는 계속 가정으로 종속될 수밖에 없고, 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어…그 기반을 만드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질문자 : 한마디로 자립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네네.

그래서 어떤 한 여성단체에서는 그, 쉼터 같은 공간을 제공하고 따로 이제 카페나 분식집 같은 그런 것들 마련해서 거기서 일할 수 있도록 한다고 들었어요. 그런 게 계속 연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쉼터를 다시 가정으로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 간혀 있는 곳이 아니라 가정외의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과도기적인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해요. -영호의 인터뷰 중-

영호는 쉼터가 십대가 자립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영호는 ‘노동할 수 있는 조건’을 언급하였다. 이와 같은 조건은 실제로 가출했을 때, 모든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돈’을 벌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된다. 이번 연구를 위해 만난 가출한 십대 여성들은 많은 경우 아르바이트보다는 ‘아는 오빠’나 ‘술을 사주겠다는 아저씨’ 등에게서 ‘돈’을 제공받고 있었다. 그러다가 아이들은 일상적으로 성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기도 한다.

조건하는 언니 아는 오빠 집에 있다가.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그 오빠는 저랑 열 살 차이 나는데, 삼촌이라고 부르라 하고 저한테는 아무 짓도 안했어

2. 여성 청소년의 가출 경험

2.3. '집'이 되어주지 않는 쉼터

요. 언니하고는 맨날 그런 게 있었는데, 넌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넌 집에 빨리 들어가라고. 그 오빠는 지금도 연락하는데, 저한테 나쁜 짓을 한 적은 없어서 연락하는 거예요. 찜질방 보다는 모텔 갔어요. 그 언니가 돈을 내줘서. 주말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평일날만 갔어요. 둘이 하루 있다가 나오구. 그 언니가 혼자 (조건만남을) 뛰러갔을 때. 저 혼자 pc방에서 멍뚱멍뚱 있었을 때. 그때 정말 쪽지가 막 오는데 그러고 있으니까. [조건쪽지? 그렇게 많이 와?] 진짜 장난 아니게 많이 와요. 저 그때 참 알았거든요. 장난 아니게 충격 받았어요. 카페 같은데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루에 두 번 세 번 (언니가) 가면요, 17만원 11만원 이렇게 받아오니까. (중략) 원래 동료 오빠가 더 무서운 법이에요. 자꾸 먹이거든요. 얼마지 아니까 주량이. 동료오빠들이랑 저 절대 안 먹어요. 원래 남자들이랑 잘 안 마셔요. 동네 오빠들이랑 술 먹은 적 없어요. 저 진짜. 술을 마셨어요, 근데 어떤 남자가 술 취해서 자빠지는 거예요. 겁나, 엄청 때렸어요. 아무 짓도 안했는데 엄청 깜짝 놀랐어요.

-수희의 인터뷰 중-

어제도 막 저랑 같이 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하지 마요 진짜. 그래서 제가 막 화가 났어요. 그래서 막 욕을 했어요. ××!! ××!! 그랬더니 “어~ 무서워, 알았어. 알았어.” 이랬어요. 전 솔직히 막 남자랑 자는 거 싫어해요. 저 000호로 언니 데리고 나갈게요. 그랬더니 “알았어~” 이러면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아니 막 전 안 하고 싶은데, 하고 싶지 않은데, 씻을 땀 어떻게 씻으라고 했더니, 막 같이 씻냐? 이래요. 알았어, 알았어, 안 할 테니까. 저한테 어제 막 따귀 맞았어요. 자꾸 하려고 해서 저 때렸어요. 그랬더니 그러는 거 아니다 그랬는데, 오빠가 잘못했잖아요 그랬어요. 싸대기 진짜 때렸었어요. 근데 오빠가 화가 난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솔직히 오빠가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그랬어요. 전 솔직히 누가 제 몸에 손대는 거 진짜 싫어요.
-지희의 인터뷰 중-

인터뷰자들은 모두 자기가 그와 같은 ‘위험한’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일상화되어 있는 이와 같은 ‘익명의 남자들과의 만남’은 위험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짜릿하고 재미있는 가출한 일상생활의 중요한 일부분이며, 이 ‘십대 여자애들과 놀고 싶어하는 남자들’은 최소한 가출한 십대 여성들에게 심터보다는 더 유용하고 유익한 존재로 여겨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익명의 남자들과의 어울림의 일상화가 가출한 십대 여성들에게 실제로 위험한 것은, 성폭력의 상황이나 성매매의 상황에 노출되게 된다는

2. 여성 청소년의 가출 경험

2.3. '집'이 되어주지 않는 쉼터

점이 아니다. 사실, 가출한 여성들과 이들에게 일정 정도의 금전적 대가 혹은 물질적 대가를 제공하면서 성적인 접근을 행하는 남자들과의 관계는 기존의 가해자/피해자 구도의 성폭력, 성매매의 프레임으로는 제대로 분석해낼 수 없다. 가출한 여자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하게 사회적으로 자원화할 수 있는 '어린 여자'라는 것이 가지는 것과 이들을 욕망하는 익명의 남자들이 만나면서 맺어지는 다양한 상황들 속에 성폭력적이고 성매매적인 것들이 위험과 쾌락, 돈과 교환과 함께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가장 위험한 것은 '(어린)여자'라는 것이 자원이 된다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젠더적 존재로 체현하게 되는, 이 익명의 남자들과의 만남이 일상화되어버리는 십대 여성 청소년들의 상황이 된다. '어린 여자'라는 것만으로도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있다고 당연하게 사고하는 십대 여성의 세계 속에서, 자기가 어떤 세계를 가질 수 있는지 상상해보고, 자기 스스로를 새롭게 성찰해볼 수 있는 행위성의 공간은 매우 협소해진다. 이러한 사고 속에서 '노동할 수 있는 조건'은 자기를 끊임없이 성찰하고 탐구하는 배움이나 열망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저 '(익명의 남자들이 좋아해줄만한) 여자화된 존재로 있는 것'이 되어버린다. 따라서 '노동할 수 있는 조건'이 고려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십대 여성들의 젠더적 상황이 함께 고려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쉼터에서는 이 십대 여성들에게 '남자와의 만남을 금지'시키거나, '성매매'를 단속할 것이 아니라, 이들이 왜 남자와 만나고, 그 만남을 즐기게 되고, 이를 유지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이와는 다른 세계를 이들 십대 여성들이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획일적이고 일반적인 자립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이 아니라, 젠더적 존재로서의 십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인문학적인 교육이 함께 행해져야만 한다. 이와 함께 이들이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미래를 설계해낼 수 있을지에 대해 그려내 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나 가정에서는 행해지지 못했던 다른 방식의 인성교육이나 성교육과 함께 자립 프로그램이 행해져야만 할 것이다.

쉽터에 필요한 또 다른 부분은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공동체의 역할을 쉽터가 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학교와 가족을 떠나온 아이들은 계속 이동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또 금방 떠나가는 빠른 시간성을 살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굉장히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한다.

이들이 아이러니한 게, 끊임없이 주기를 바꾸고 짧게 하고 거주지도, 사람도, 그런데 개네들은 소속감을 중시 여겨요. 그 짧은 오토바이 폭주족과 어울리는 짧은 순간에도 그들과의 일체감과 소속감을 통해 안전하고 즐겁다고 느껴요.

2. 여성 청소년의 가출 경험

2.3. '집'이 되어주지 않는 쉼터

그래서 같이 있는 거죠. 외부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들은 쉼터보다 오토바이족들과 있을 때 안정감과 소속감을 느끼는 거예요. 즉, 쉼터가 아이들이 느끼고 싶어 하는 소속감을 못 주는 거예요. 지금의 프로그램의 문제는 뭘까. 사실 그 프로그램들에서 이 아이들에게 그 스스로가 귀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하지 못하는 거죠. 경험을 못 시켜주는 거죠. 쉼터나 기관의 문제를 찾자면, 사실 그걸 해줘야하는 건데요. 애들은 거의 집에서 이걸 못 받은 애잖아요. 지금 아이들이 공공 사유재이기 때문에 집에서 못 받으면 그걸 받을 수 없어요. 이런 아이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면, 그걸 공공에서 경험하게 해줘야 하는데, 여전히 그건 공백으로 남아있는 것……. 지속적으로 아이들에게 마음을 헌신해줄 수 있는, 그런 흔들리지 않는. 그런 존재들이 많이 좀 있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공공에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애들을 좀 공공재로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가영-

자문인이 지적하고 있듯이, ‘스스로가 귀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는 것’은 가출한 십대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가출한 십대들은 대부분 타인과 맺는 관계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 맺는 관계 속에서 많은 경우 ‘존중감’을 지속적으로 느껴오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많은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가지

고 있는 ‘타인에 대한 불신감’과 ‘자아존중감의 부족’은 이 자체가 이미 아이들에게 내재되어, 관계성의 성질 자체를 다른 방식으로 조직하게 한다. 즉, 이들에게 있어서, 타인에 대해 불신하고 자아존중감이 부족한 것 자체가 문제적이거나 힘든 상황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이고 자연화되어, 세계를 보는 틀을 구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십대들’의 기준에 맞춰서 타인에 대해 신뢰하게 하고 자아존중감을 회복하게 한다는 목표로 이들을 교육하거나 훈육할 땐, 결코 이들에게 다가갈 수 없다. 이와 같은 시각은 이들에게 ‘타인에 대한 불신감’을 확신하게 하는 또 하나의 사례적 증거가 될 뿐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관계성을 지닌 십대 스스로가 자기가 타인을, 자기 자신을,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과 시각을 다른 방식으로 재구성할 수 있도록, ‘귀한 존재’임이 당연한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민가영도 지적했듯이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마음을 헌신할 수 있는 존재들이 필요하다. 이 모든 역할을 쉽터가 해내기는 어렵겠지만, 아이들이 맺고 있는 일시적인 관계성, 불신의 만연, 잦은 거짓말 등을 기존의 잣대나 규범의 틀로 해석하거나 재단하지 말고, 이들의 상황 속에서 이해하고, 좀 더 넓은 세계로 아이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아이들의 실질적인 욕구와 상황을 고려하여, 아이들을 지원하고

2. 여성 청소년의 가출 경험

2.3. '집'이 되어주지 않는 쉼터

있는 곳으로 부천의 '청개구리심야식당'을 들 수 있다. '청개구리심야식당'은 부천역에 1주일에 한 번, 가출한 청소년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고민상담을 하는 등,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 거리에서 직접 가출한 청소년들을 만나고 있다. 일단, 청소년들이 실제로 살고 있는 '거리'에 있기 때문에, 가출한 청소년들은 이곳에 접근하기가 매우 쉽고 용이하다. '쉼터'처럼 멀리 찾아가야 하는 것도 아니고, 찾아가면 뭔가를 꼭 해야 하는, 혹은 하지 말아야 하는 규칙이나 규율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그냥 가서 자기의 이름과 연락처를 쓰고, 밥을 먹고, 필요하면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곳에서 친구들을 만나기도 한다.

가출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있는 이정아씨는, '살 곳', 더 정확히는 지낼 공간과 소속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들이 집을 나와 거리에서 살고 있고, 기존의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면, 이들이 거리보다 좀 더 편안하고, 기존의 집보다 애정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대안적 가족 관계를 꾸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혈연관계가 아닌 멘토가 이들과 한 집에 모여 살면서, 새로운 가족을 꾸리고, 그 안에서 함께 규칙과 규율을 정하고 가족을 운영한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가족 속에서 아이들은 새로운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새로운 세계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쉼터는 단순히 공간을 제공하는 기계적인 역할을 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돌봄과 애정,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대안적인 공간’으로 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수의 관리인들에 의해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사회 복지 시설로서의 쉼터가 아니라, 가정과 학교의 기능이 함께 행해질 수 있는 돌봄과 애정, 교육의 공간으로서 쉼터의 컨셉트가 새롭게 구상되어야 할 것이다.

2. 여성 청소년의 가출 경험

2.4. 개별적 안전 지침의 구축

2.4. 개별적 안전 지침의 구축

기본적으로 현재 한국사회에서 청소년은 개별 단위가 아니라 부모에게 부착되어 있는 존재로 간주된다. 이들은 '보호자'가 있어야 사회 성원이 될 수 있는, 반쪽짜리 성원으로 간주된다. 그나마 '보호자'가 없는, 혹은 '보호자'에게 보호를 요청할 수 없는 청소년들은 반쪽짜리 성원도 될 수 없다. 이러한 틀에 대한 사회적 고려는 부족한 듯 보인다. 현재 '보호자'가 맡은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논의가 없는 상태이다.

예전에 이대(근처)에 원룸을 구해서 함께들 살았을 때, 15세 활동가인 분이 가정 폭력 때문에 나오셨다. 살려면 돈이라도 벌어야 하는데 노동법이 만 15세 미만은 금지되어 있어서 17세라고 속이고 하다가 증명 등을 떼 오라 하면 그만두고 하는 식으로 단기 알바하고 그랬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사실 15세 미만 노동을 다 풀어라 해야 할지, 그들에게 기본 소득을 보장하라 해야 하는지 방향을 고민하고 있는 단계지만 그런 문제가 있다. 그리고 어린 사람의 노동은 성인 노동보다 저평가되어 저임금 노동이고, 가게 이미지에도 안 좋다. 그래서 시급을 낮게 주려하는데, 시급 6천원인 곳은 대학생이나 이런 사람이 되지 청

소년이 뽑히지 않고, 4천 5백원정도라고 하면, 대학생들이 안하고 청소년들이 하게 되는 것. 그래서 환경 열악한 곳에서 일하게 되고, 청소년이라고 돈을 깎거나 잘릴 때도 일순위이다. -주연-

[알바는 어떻게 알아봤어?] 인터넷이요. 알아 봤는데요 알바자리가 잘 없어요. [어떤 알바 주로 했어?] 주방. [그때 알바 할 때 얼마 줬어?] 시급이요 3천 4백원이에요? 한 달 일했는데요. 10만 5천원 줬어요. 막 돈 안 줄때도 있었어요. 진짜 그 새끼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경하의 인터뷰 중-

위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들은 노동 시장의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 진입하기 위해서 부모동의서가 필요한 존재들로 간주된다. 부모 동의서와 함께 비로소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 체계 안에서 부모동의서를 구하지 못하는 이들은 ‘안전’이 보장되지 않아도 되는 존재들로 전락한다. 이들은 초단기적인 노동 현장에서 잠시 동안만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 뿐이다.

2. 여성 청소년의 가출 경험

2.4. 개별적 안전 지침의 구축

[그러면 나와있을 때 돈 버는 거는 앵벌이 말고 또 뭐해?] 전단지 알바.
 [또?] 저희는 전단지 밖에 못해요. [전단지 밖에 못해? 전단지 하면 얼마나 벌어?] 2만원? 3만원? -소현의 인터뷰 중-

돈은……. 제가 지금 얼마 있는지를 잘 모르겠는 게, 문제가 뭐냐면은 청소년이 할 수 있는 거는 단 하나도 없거든요. 민법상으로도, 선거권이든,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니까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뭐 일을 하더라도 뭐 그게 형식상, 형식적으로라도 부모님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리고 그 제 주머니에 있는 500원짜리 하나 마음대로 쓸 수 없거든요. 법적으로 따지고 보면 저는 그걸 쓸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저는 주인이 아니고 어, 그렇게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적더라고요. 뭐 그냥 주민등록번호 그냥 까고……. [민증이 없으니까…….] 민증도 없고. 네, 그냥 거짓말치고, 쳐가지고 바로 계약을 한다고 해도 뭐 개인 조회해 보지 않잖아요? 그런 거 거짓말로 해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불러요?] 친구랑 이제 다 짚죠. 그, 제가 자꾸 안 먹히는 거예요. 스무 살이라고 해도 자꾸 보여 달라고 막 해가지고, 그런 집은 이제 빼고 어쩔 수 없고, 좋은 집이라도. 그렇게 해가지고 샀는데 현금 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카드기가 있는데 카드에 돈을 뺄려면 부모님 동의를 필요해요. [체크카드? 그냥 기계로 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비밀번호가 3번 틀러가지고…….

[그거는 그렇지…….] 그래서 완전 망한 거예요(웃음). -영호의 인터뷰 중-

영호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청소년들은 청소년이라는 자체로 주어진 권리가 없다. 은행 창구에 들러야 할 때조차 부모와 동행할 것이 요청된다. 이런 가정 속에서 부모와의 관계를 지속시키지 않고자 하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보호를 요구하는 것은 요원해 보인다. 앞에서도 기술했듯이 이들은 모든 종류의 ‘보호’를 ‘구속’이나 ‘억압’과 동일시하며 거리에 나와 있다. 보호를 보장받을 것을 거부하게 되면서 동시에 이들은 어떠한 안전망도 상실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어쩔 수 없이 분리를 원했던 부모에게 다시 돌아가 최소한의 생계비 등의 방패막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가출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보호를 거부한 부모들에게 이들은 성가시기만 한 존재들이기도 하다.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저는 알바 할래도 나이는 많은데 초졸 밖에 안 되니까 써줄 사람도 없고. 용돈도 안 줘요 집에서. 아빠한테 달라고 하면 안 주고 집에나 있으라고 하고. 맞으면서까지 받았어요. 하고 싶은 건 너무

2. 여성 청소년의 가출 경험

2.4. 개별적 안전 지침의 구축

많은데, 옷도 사고 싶고, 핸드폰비도 내야 되고, 그래서 맞으면서 받았어요. [아까 뭐 단체에서 돈 나온다고 했던 건?] 저한테 나오는 게 아니라 기초생활..... 아빠가 가지고 있어요. 저한테 용돈도 안 주고. -승미의 인터뷰 중-

승미의 인터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들의 몫으로 배당된 기초생활비는 보호를 거부한 부모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이 돈은 이들의 생활비가 될 수 없다.

[지금 주혜에게 제일 필요한 거?] 편하게 자유롭게 놀 수 있는 잠자리. 일단 생활비를 벌어야 해요. 근데 알바 할 데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저도 조건(만남) 이런 거 해봤어요. 근데 못 하겠더라고요. [왜?] 비위가 안 맞아요. 개네들은 바라는 게 많고 저는 하기 싫고. 이거 저거 다 해달라고 하고. 돈 냈다고 이거저거 요구하고. [왜 알바 할 데가 없지?] 안 받아줘요. 나이. [일 하고 싶어?] 하고 싶죠. 받아주는 데가 없으니까. -주혜의 인터뷰 중-

항상 길거리. 막 옥상에서 자고 추운 날, 그 때 겨울이었어요. 패딩 입고 자는데, 패딩입고 옥상에서 자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신문지를 깔고 잤죠. 신문

지를 깔고 자는데도 너무 추운 거예요. [혼자?] 친구들이랑요. 언젠는 막 화장실에서 자고. [어떤?] 변기통에서. [역에 있는?] 네. [와…….] 어쩔 땐 막 돈 있을 땐 찜질방에서 자거나 모텔에서 자거나. [피씨방은?] 피씨방에선 안 자요. [밖에서 자면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한데요, 제가 물리칠 수 있으니까. 제가 발차기 잘한다고 칭찬 받았어요. 짜리몽땅해도 발차기 잘해요. [위험한 상황 없었어?] 네. 없었어요. [주로 친구랑?] 네. 친구랑 있을 때도 있고 저 혼자 있을 때도 있어요.

[좀 무섭잖아?] 별로 안 무서워요. 노숙자 아저씨는 노숙자고. 저 아빠한테 그런 거 많이 배웠어요. 남한테 너무 쫓지 말라고. 너가 막 쫓면은 남이 널 쉽게 본다고. [여긴 좀 안전한 장소가 있어?] 네. 그냥 화장실, 화장실이 최고예요. 화장실에서 막 이렇게 (구겨져서) 이렇게 자고. 언젠는 또 변기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들어가서 자고. [주로 이 근처 부천에 있어?] 거의 여기에 있어요. [같이 가출하는 애들은 어떤 애들?] 다, 떠돌이들. [어떻게 알게 돼?] 그 사람들이 말을 걸어요. 가출, 가출이세요? [딱 알아봐? 너 어떻게 알아봐?] 아, 혹시, 가출이세요? 가출일 경우에는 서로 같이 다니고 그래요. [주로 여자애들이랑?] 네. 여자애들이랑요. [남자랑은?] 남자 친구, 친구인 가출 한 애 있으면 같이 다니기도 해요. -수희의 인터뷰 중-

2. 여성 청소년의 가출 경험

2.4. 개별적 안전 지침의 구축

가출한 여성청소년들이 기초적인 생계비가 늘 부족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것은 동시에 안전하게 머물 곳을 마련하는 일이 요원한 일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이들은 쉼터를 선택하지 않으면 거리를 선택해야 한다. ‘보호’의 울타리가 없는 사회 속으로 걸어 나왔다고 간주되는 이들이 거리에서 손쉽게 만나는 상대는 이들의 성을 구매하고자 하는 성인 남성들이다. 이런 맥락에서 여성 청소년들은 자신의 여성성을 젠더화된 시장에서 구축한다. 이들의 비유예/비훈육의 상태는 ‘영계’를 선호하는 문화 속에서 바로 소비될 수 있는 속성으로 환원된다.

[밤에 돌아다니면 뭐해?] 밤에 돌아다니면요. 아저씨들이 막 자자고 그래요. [아저씨들이 그렇게 자자고 하면 자는 친구도 있어?] 네. 넘어가면. 어제도요. 막 아저씨가 술 먹으러 가자했는데요. 제가 뭐야 막 이려고 욕했어요. 아는 언니가 들어가지고요. 말로 조져버려 가지고요.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이 아저씨가 술 먹으러 가자했다고 근데 그 새끼는 안했다. 그래가지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안하고요. [경찰에 가서 얘기하면 경찰아저씨가 어떻게 해주는데?] 아저씨 데리고 파출소에 가요. [진술서도 쓰고?] 아니요. 파출소 가면요 줌 있다 그냥 나와요. [그럼 너는 그런 일 있을 때마다 신고하는 거야?] 네. [맞

이들 그렇게 물어봐?] 네. -경하의 인터뷰-

원래 제가 있던 돈 다 쓰고, 주위에서 연락해서 돈 빌리거나. 만약에 돈 정말 없고 잘 때도 없고 이러면, 친구나 아는 오빠네 집 가서, 오빠들이 술 사주고 밥 사주고 하잖아요. 여자애들인데. 술 사주고 밥 사주고 하면 오빠들이 거기서 막 자고. 신세를 지면 저희도 그만큼, 뭐, 집안일을 도와준다거나, 그러거나.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딱히 불만이 있다기 보단. [신세를 지면 청소를 해주고 밥도 해주고?] 만약에 밥을 먹는다 해요. 그러면 밥을 하고, 같이 먹고 뭐 설거지 해주고. 또 사소한 거 집안일은 할 수 있잖아요. 해줄 수 있잖아요. 해주고. 별로, 그런, 나쁜 일은 별로 없었어요. 좀, 이제 바라는 점도 있죠. 막, 이제 같이, 어떻게 재워주면, 한 번 해 볼려고 막. 저는 아닌데, 제 친구는, 제 친구는 제가 어디가 있을 때 막 같이 자고 그랬었대요. 저는 딱히 그런 거 없고. -주혜의 인터뷰 중-

[어린 여자아이들이 남자 오빠들이 술 먹자 하면 좋아해?] 좋아하죠. 아무래도. [몰랐어, 그건 정말] 맞아요. 어른들이 어린애들한테 과자 사줄게, 이러면 좋아하듯이, 그럼 좋아하는 거예요. 여자애들이 돈이 없다, 이러는데 사줄게, 그러면 오 대박, 오 콜! 이러면서 좋아해요. 왜냐면 어린 나이에는 술을 저희가 막 쉽게 접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술 사줄게 그러면 좋다고 하고 먹

2. 여성 청소년의 가출 경험

2.4. 개별적 안전 지침의 구축

기야 먹어요. 그 나이엔 술 많이 못 먹고, 얼마 안 먹어봤으니 막 금방 취할 거 아녜요. 저도 막 딱 먹고, 한 병 먹고 기절했나 그랬어요. 그 때 절 강간을 한 거예요. 아는 오빠들이. 좀 여러 명인 거예요. 근데 이제 막 제가 무섭고 신고를 못하니까, 그걸 계속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주혜의 인터뷰 중-

이들은 자신의 안전망을 스스로 구축하고자 하는 전략 속에서 남성들과 관계를 유지한다. 부모의 보호를 거부한 순간 잃어버린 안전망을 인맥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일시적으로 구성된 인맥은 이들에게 생존을 위한 자원이 되고 이런 일시적 인맥 속에서 자신의 소속감을 확인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인맥은 일시적인 거주 장소를 제공하고 안전망을 구축해 줄진 몰라도 언제나 이들이 제공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요구한다. 함께 지내는 무리에서는 청소나 방 정리 등 여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요구되기도 하고, 잘 곳을 제공하는 남성으로부터는 이들의 섹슈얼리티가 요구된다. 이들은 자신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 속에서 성매매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생존 법칙을 깨달은 이들은 자신만의 안전 수칙을 마련하기도 한다.

[술은 잘 마셔?] 술은 두 병. **[잘 마시네?]** 못 마시는 건 아니예요. 누구랑 마셔도 안 져야죠. **[왜?]** 남자랑 마시면 불안하잖아요. 남자들이 이상하니까. 남자들보다 먼저 취하면 안 돼요. **[술은 자주 마셔?]** 아뇨. 자주 안 마

셔요. 술 끊었어요. [왜?] 술 냄새 원래 안 좋아하고. 분위기를 즐겨요 저는. [보통 어디서 마셔?] 지금은 호프 이런 데 잘 못 가니까 방 잡고 마시는데. 호프는 단속이 심해요. [누구랑 마셔?] 친구들. [친구 많아?] 없는 건 아니에요. [친구들은 가출한 애들?] 아니요. 학교 다니는 애들. [개들도 나오고 싶어 하니?] 그렇기는 한데 제가 나와 있으니까 말려요. [네가 말리는 편이야?] 네. 개들이랑 저랑은 다른 게 있으니까. [뭐가?] 개들은 너무 어려 보이고. 너무 어려 보이면 건들잖아요. 너무 어려 보이는 애들이 길에 나와 있으면 안 돼요. -주혜의 인터뷰 중-

주혜는 남자들과 술을 마실 때 남자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절대 먼저 취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리고 너무 어려보이는 애들은 거리에서 많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말한다. 주혜는 16세라고는 믿을 수 없는 옷차림과 화장을 한, 매우 성숙해 보이는 외모를 가졌다. 자신의 이러한 외모 역시 거리에서 터득한 생존 전략으로 설명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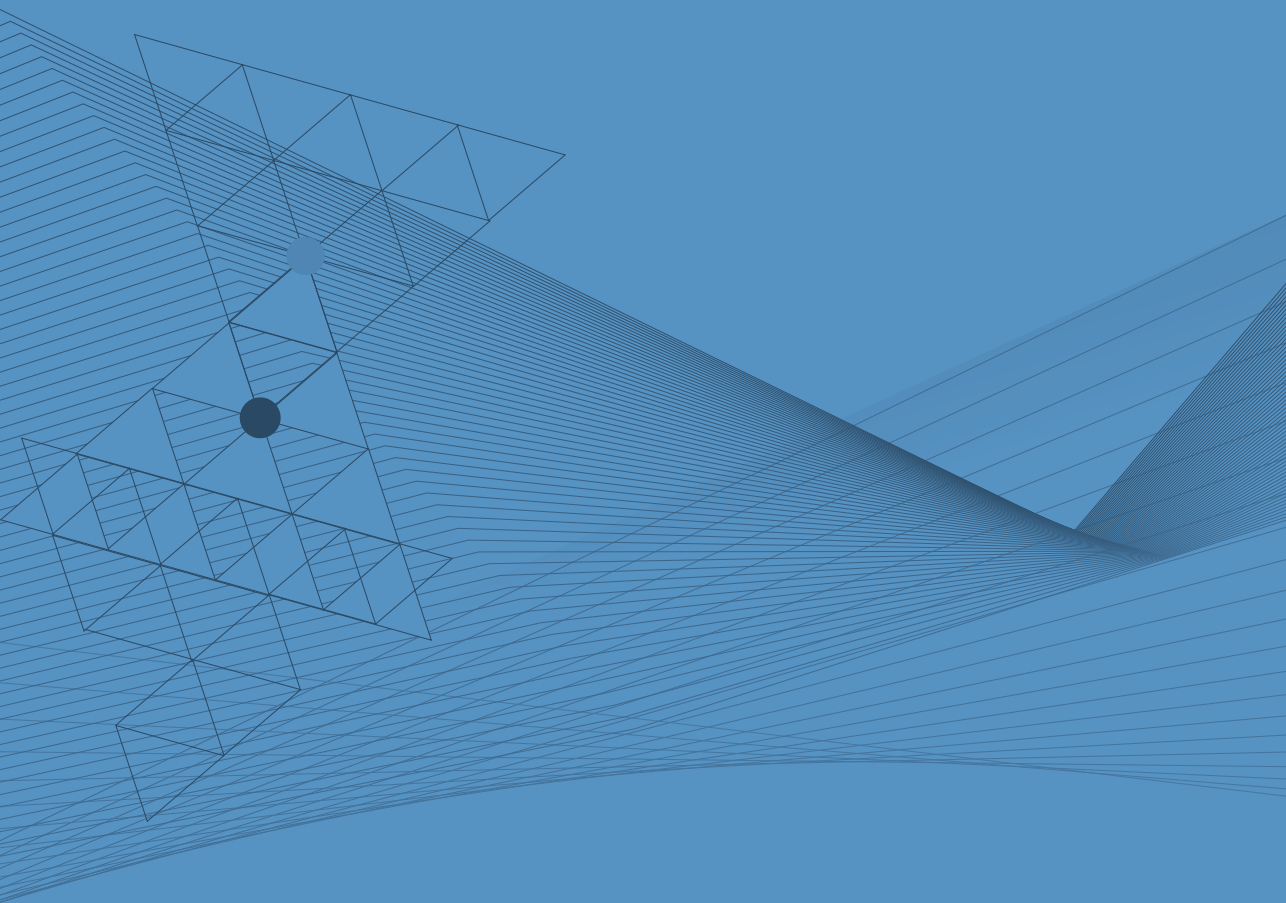
[목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 좀 가까이 와봐.] 제가 목이 좀 안 좋아서요. 병원을 안 가서. (한 쪽 목이 부었음. 목 부은 이야기 계속 함.)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 병원 가면 집 들어가서 안 돼요. 제 생각에는 편도염 같아요. 그래서 찬 거 계속 먹어요. 입 안도 같이 부었어요. 편도염에 크게 걸렸어요. 여기

2. 여성 청소년의 가출 경험

2.4. 개별적 안전 지침의 구축

편도가 양쪽 여기 있는데 입 안에가 여기 지금 하얗게 부었어요. 겨울 지나 봄 때쯤부터. 편도 잘르면 집에 가야 하잖아요. 편도 잘르기 전에 목이 잘린 텐데. [여기 물푸레나무 선생님이나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제가 쉽터를 안 들어가는 이유는요. 갑갑하잖아요. 딱 정해져 있고. 특히 그 ○○ 여자 쉽터. 너무 딱 정해져 있어요. 그 땐 뭘 해야 되고 그땐 뭘 해야 되고. 자유롭진 않잖아요. 그래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주혜의 인터뷰 중-

이들은 가족 내 존재로서의 ‘보호’를 거부하거나, 쉽터 등에서의 ‘가출 청소년’이라는 정체성에 기반한 ‘보호’를 거부함과 동시에 개인적인 안전 수칙들을 통해 사적 안전망을 확보해야만 한다. 이러한 안전 수칙들은 거리에 나온 청소년들의 입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고 한다. 가장 중요한 자원은 잘 곳과 생활비이다. 이러한 원칙 속에서 건강의 문제 등은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되고 간과된다. 위의 주혜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사실을 잘 확인할 수 있다. 주혜는 현재 편도선에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보험의 문제 때문에, 혹은 수술을 하게 될 경우 보호자 동의 문제 때문에 병원에 가기를 거부하고 있는 중이다.



3

맺음말 :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

사교육으로 지친 십대부터 거리에서 사는 십대까지, 십대들은 매우 다양한 스펙트럼 속에 놓여 있다. 이 때, 이와 같은 다른 상황은 단순한 차이가 아니라, 성별, 성적지향, 거주 지역, 가족 구성의 형태 및 사회적 지지 집단, 사회적 자원への 접근성 등에 의해 위계화 된 차이이다. 그리고 이 위계화 된 차이는 십대에 대한 사회적 규범과 함께 작동하여, 십대들 내부를 위계화 한다. 그러나 이 위계는 “십대” 시기라는 “일시성”과 “아직”이라는 시간성과 함께 작동하여 십대들 내부에 복잡하고 다양한 문화를 형성하며, 이 안에서 십대 시간성은 위험하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도전에의 “가능성”의 시간을 담보하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여기에 십대의 섹슈얼리티 문제가 개입되면서, 십대들이 놓여 있는 지형은 더욱 복잡해진다. 이 복잡한 지형 속에 가출한 십대 여성들이 위치된다. 따라서 가출한 십대 여성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복잡한 지형들을 함께 고려해야만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십대들은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서 ‘가족’을 다양하게 경험하고 있다. 특히 신자유주의는 시장 중심적 개인주의를 문화적 이데올로기로 내세우며 사회적 안전망과 집합적 가치에 기반한 제도를 개별화 시키면서, 신빈곤 상황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는 성별분업에 기반한 가족 중심 삶에 대한 전망 상실과 함께 개인에 대한 가족의 구속력과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서 십대들에게 ‘가출’은 단순히

일시적인 청소년기의 일탈 행위가 아니라, ‘가족’의 의미를 재질문하게 하는 사회적 상황이 된다. 가출 청소년의 많은 경우 ‘가족’에서 사회적 안정망을 구축하지 못한 경우, 가족을 벗어나 거리로 나오게 된다. 따라서 십대의 가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집을 나왔다는 것을 문제삼을 것이 아니라, 왜 집을 나오게 되었는지를 문제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십대에게 주어지는 ‘쉼터’와 같은 국가 정책이 이들이 집을 나오게 되는 원인과 그 과정에 대해 전혀 살펴보지 않고, ‘모범생 청소년’의 규범과 가치에 부합하도록 이들을 훈육하고, 이들이 문제를 느껴 나온 ‘집’으로 이들을 돌려보내겠다는 목표를 지니게 됨으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쉼터’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십대 청소년들에게 쉼터가 돌봄과 애정, 그리고 인문학적 교육이 가능한 대안 공간으로서 새롭게 구성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이처럼 쉼터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한 상황 속에서, 가출한 청소년들이 어떻게 스스로 안정망을 구축해나가는지에 대한 지점도 함께 살펴보았다.

집을 나와서 거리에 산다는 것은 일견 위험해 보인다. 그러나 아이들이 집을 나오는 것이 ‘집’이 거리보다 더 위험해서라면?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집을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십대들이 기본적으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인 공공 자원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처

3. 맺음말 :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

럼 개별 가족에게 인간의 재생산과 돌봄을 거의 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회에서, 가족이 그와 같은 역할을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그 가족 구성원 중 가장 자원이 부족한 십대, 그리고 여성들은 최우선적으로 사회적 위험 상황 속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가출한 십대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고려할 때, 이들이 개별적인 가족이 가진 자원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지는 자원으로만으로도 이들이 안전하게 기본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인 안정망을 구축해야만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남옥, 2008, 가출청소년의 자립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중장기청소년쉼터를 대상으로,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민가영, 2008, 신자유주의 시대 신빈곤층 십대 여성의 주체에 관한 연구 : 젠더, 계급의 상호성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민가영, 2009, 청소년 성매매 행위의 '자발성' 과 그 맥락에 대한 질적연구를 통한 성매매 청소년의 자발성 논쟁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청소년연구 제20권 제1호 통권 제52호

변유선, 2012, 일시쉼터의 서비스품질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변혜정, 민가영, 2008, 청소년의 가출의미에 대한 연구 : 계급정체성에 따른 성역할과 성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23권 1호

유서구, 최은영, 2012, 가출청소년의 희망에 영향을 주는 요인: 실무자 지지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4권 1호

윤선미, 2011, '집'을 찾는 여정으로서 가출 : 청소년들의 장기 가출 경험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최순종, 2011, 가출청소년쉼터의 새로운 기능에 대한 정책적 모색, 청소년학 연구, 제18권 6호

저 자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여성가출청소년 인권실태 현장조사팀

김은실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교수)

김주희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박사과정 수료)

김애라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박사과정 수료)

류혜진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박사과정)

송유진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박사과정)

나윤정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과정)

백미륵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과정)

정규리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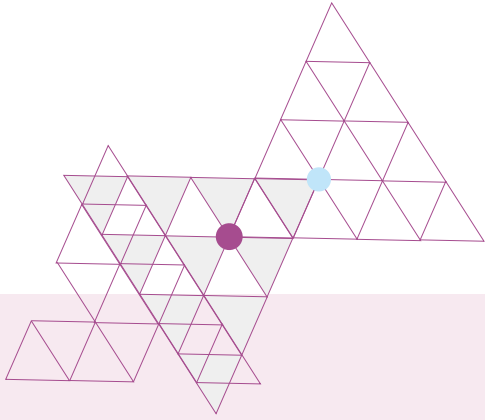
국가인권위원회 2012년 여성가출청소년 인권상황현장조사 보고서

‘보호’ 논리에서 사회적 ‘안전망’ 구축으로

-
- | 인 쇄 일 | 2012년 12월 26일
 - | 발 행 일 | 2012년 12월 27일
 - | 발 행 처 |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 차별조사과
 - | 주 소 | 100-842 서울시 중구 무교로 6 금세기빌딩
<http://www.humanrights.go.kr>
 - | 문의전화 | 여성인권팀 02) 2125-9688
 - | F A X | 02) 2125-9928
 - | 제 작 | 한학문화 (02) 313-7593

발간등록번호 11-1620000-000427-01

비매품



국가인권위원회 2012년 여성가출청소년 인권상황 현장조사 보고서

'보호' 논리에서 사회적 '안전망' 구축으로



100-842 서울시 중구 무교동길 41 금세기빌딩 9층 조사국 차별조사과
Tel. (02)2125-9688 Fax. (02)2125-9928 www.humanrights.go.kr



9 788961 142816

ISBN 978-89-6114-281-6